

호남 불교 중흥 발원 2000일 기도 회향

무각사, 사부대중 300명과 회향 법회

광주 신도심 포교의 중추적 역할을 할 무각사(주지 청학)가 2000일 기도 회향을 2월 20일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번 기도는 청학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후 호남불교 1번지를 추창하며, 지난 2007년 8월 23일부터 시작했다. 침체된 호남불교 중흥과 도량 중장발사 원만성취를 위해 시작된 기도는 하루 세 차례의 예불-금강경 독송-108배 수행으로 1시간 30분씩 매일 이어졌다. 이를 위해 청학 스님은 기도기간에 사찰 밖 출입을 금한 채 정전에 입했다.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총회의장 향석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강화 전등사 회주 장운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을 비롯해 신도 300여명이 동참해 회향을 축하해 주었다.

청학 스님은 인사말에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까지 바쁘게 자승스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기도를 시작하지 2천일을 맞았는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정 땅을 밟아 받고 불사도 많이 진척된 것은 신도를 덕본"이라며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묵묵히 허공에 꽃을 그리다 보니 연이 지났다. 불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꽃이지만 언젠가는 볼 수도 있듯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소중히 하는 여기자"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은 회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해야 할 일 많은 만큼 조금씩 하지 말고 천천히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사말에 앞서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2000일간 애써 기도해주신 신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시기도 때마다 회향진언을 하는데, 회향진언이란 오늘 내가 기도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면

6년 동안 금강경 독송 108배 등 수행 자승 스님 등 사부대중 300명 참석

그 공덕을 나와 내 가족이 받고 남은 것을 모두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발원"이라며 "2000일간 쌓은 공덕을 받은 가족에게 나머지는 모두 이웃과 함께 끝으로 회향하겠다는 기도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법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기도에 이어 회향법회가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자승스님은 주지 청학스님과 천일기도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동참한 강명진(54.전



무각사가 2000일 기도 회향 법회를 2월 20일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총회의장 향석 스님, 강화 전등사 회주 장운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북 과학대 감사)씨를 비롯해서 무각사 신도 9명에게 선물을 증정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청학 스님의 도반이자 중앙총회의장 향석 스님은 축사에서 "출가 후 2천일 기도 회향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2천일 기도면 선원 참선 20년 수행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기도란 한자로 뜻풀이 하면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 연장이 쉽지 않다. 그야말로 자기 목숨 다 바쳐야 연장된다. 것처럼 사력을

다하지 않고는 2천일 기도를 다 할 수 없다. 이런 스님이 계시기에 한국불교가 희망이 있다"며 기도회향을 하는 대중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무각사는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자비봉사단을 구성 매년 지역민들을 위한 쌀나누기, 동지족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나눔 공간인 재미장터와 문화공간인 로터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누고 비우며 힐링 체험하세요"

송광정심원-하람 템플스테이 협약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불교의 수행 방법과 자연친화적인 생활방식의 체험이 녹아있는 템플스테이와 지친 심신을 치유 하면서 서로가 단합되는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나비체)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송광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송광 정심원(관장 우우호)과 교육전문 법인 하람(대표 이서경)은 2월 19일 나비체 스테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개 기관이 함께 진행하게 될 나비체 스테이는 나눔(奉), 비움(休), 채움(甦)의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소외와 갈등, 불균형,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생활에 지친 참여자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비우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국 불교 템플스테이의 장점과 교육전문법인 하람의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와 결합한 '나비체 스테이'는 스마음의 이해, 스불교문화의 이해, 스비움과 스나눔과 스채움의 의미 성찰, 스인문학 강의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순례길 탐방, 직접 캔 송나물 산나물로 만드는 사찰음식 프로그램, 송나물 사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 정심원과 교육전문 법인 하람은 2월 19일 나비체 스테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바이블 템플스테이 등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유형의 템플스테이를 참여자 선택에 따라 운영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송광·정심원과 연계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도 겸비해 나 자신만의 감성 치유가 아닌 소외된 우리 이웃도 보듬으며 봉사가 마음 나누는 다양한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완주 송광사는 그동안 '큰사람이 되자, BIG 템플스테이'와 '완주 송광사 가족캠핑스테이'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왔다. 완주 송광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하람의 기업체,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 다양한 참여 기관들의 직원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접목해 맞춤형 교육연수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전남불신도회, 우리콩 장 담그기 행사

2월 21일 광주 콩조합센터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웰빙이다. 그중 각 가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식구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식 발효 음식은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에서 운영하는 저절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저절로생활')은 2월 21일 광주콩종합센터에서 '전통발효음식 우리콩 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장·된장 담그기 행사는 광주 남구 청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지원육성해 온 남구 압촌마을의 국산콩 전통메주를 이용해 만드는 건강식 식품으로, 메주를 담그는 장독에는 각 체험자의 이름표를 붙여 4개월 이상 숙성 후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

이날 첫 장을 담그는 행사에는 지용현 회장, 법선 스님(문민정사 주지), 해법 스님(미륵사 주지), 장병완 국회의원,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해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해 기념식과 전문요리의 지도하에 장·된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특히 행사에는 다문화 이주민 가족들과 지역 유치원생들이 체험에 참가하고, 장독대 옆 고목에 소원지를 매다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저절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월 21일 광주콩종합센터에서 '전통발효음식 우리콩 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지용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먹거리와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웰빙문화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좋은 문화적 전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 건강식 먹거리 만들기는 우리 식단을 지키기 위한 시작"이라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우리의 먹거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저절로생활에서 진행해온 건강식 먹거리를 각 가정과 불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매년 2월경에 지역단체인 압촌메주농부조합과 연대해 리콜으로 만든 메주를 소비자와 함께 400여개의 장독대에서 담근다. (062)385-045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안군, 조계종과 손 잡고 연꽃축제 연다

2월 21일 군청서 협약식 체결

세계적인 연꽃관광지인 무안 일대에서 개최되는 무안연꽃축제가 조계종과 공동 개최된다.

무안군과 조계종을 대표하는 호남 6대 교구 본사(대표 대흥사 법각 스님,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선운사)는 2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3 무안연꽃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 협약은 오는 7-8월에 개최되는 무안연꽃축제와 관련해 △ 축제 개최 기간은 5일간으로 정하고 △ 무안군은 종교행사와 관련한 필요한 경비 지원 △ 연꽃축제를 위한 수익금을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안군이 이렇게 업무협약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1997년부터 매년 7-8월 경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양최대의 백련 군락지인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연꽃축제를 개최하여 왔으나, 무더위와 동일한 프로그램의 반복 등으로 지역축제로서의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군은



무안군과 호남 6대교구 본사는 2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3 무안연꽃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 기대 호남불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재도약하고 아울러 관광객 유치로 통한 군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계종과 공동으로 축제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지역 불교계에서도 환영을 나타냈다. 6대교구 본사 담당자는 "지역의 중요한 문화축제가 불교계가 참여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다"라며, "특히 연

꽃은 불교를 대표하는 성화로, 무안 일로에 조성된 연꽃지는 향후 불교계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성지순례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향후 호남불교계의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동양최대의 백련자생지인 회산백련지는 불교인들 사이에서도 순례지로 알려져 있으며, 6대 교구본사 측에서도 다양한 불교행사를 준비해 불자들의 호남방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내비뒤 콘서트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초청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2월 23일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를 초청해 18번째 내비뒤 콘서트를 개최했다.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과 함께 그룹 '아카시아'의 소프라노 김영, 테너 홍원표, 알토 구예니, 바리톤 송순규 씨가 함께 진행했다. 아카시아는 내비뒤 콘서트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만으로 '돈벌곡' '자전거' '너를 좋아해' '비개' 등의 창작 아카펠라 곡을 들려주며 자신들의 음악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들 지친 삶에 잠시 멈춤의 가치를 선사했다.

일감 스님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나의 삶을 템플스테이 여행에서 만큼은 놔두어보라"는 의미로 기획된 콘서트가 18번째를 맞았다"며 "집착과 분별의 삶에서 정신적인 휴식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3년 결성된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 창작아카펠라를 발표하며 활동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